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3.3

미 증시, 파월 의장 발언과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 기대로 강세

서상영 sangyoung.seo@miraes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약화되자 견고한 모습으로 출발. 더불어 러-우 대화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전반적인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25bp 인상을 언급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 신중한 통화정책을 주장하자 상승폭 확대. 다만, 상품시장 급등이 지속되자 장 마감 앞두고 매물 출회되며 상승폭 일부 반납(다우 +1.79%, 나스닥 +1.62%, S&P500 +1.86%, 러셀2000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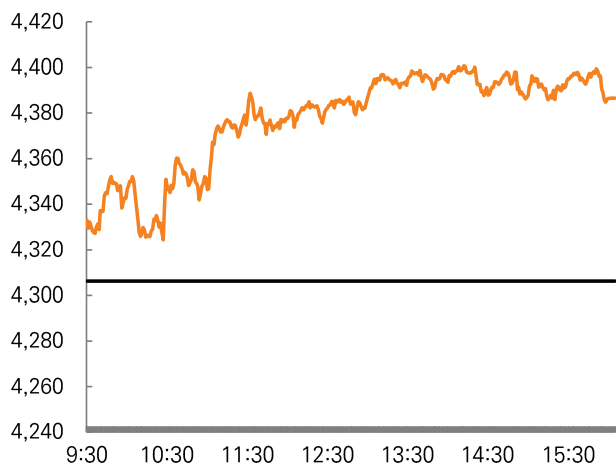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백화점 업체인 노드스트롬(+37.82%)은 견고한 실적과 강력한 전망 제시로 급등. TJX(+3.47%), 메이시스(+6.77%)도 동반 상승. 포드(+8.38%)는 전기차 사업부문 분할과 전기차 생산 목표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 더불어 바이든의 미국 내 생산 지원 언급도 긍정적. GM(+4.04%)도 동반 상승. 마이크론(+8.16%), 엔비디아(+3.18%)등 반도체 업종도 바이든 발언에 힘입어 상승. 애플(+2.06%)은 3월 8일 스프링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제품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반면, 퍼스트솔라(-8.08%)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 솔라엠티지(-3.13%), 인페이즈(-3.93%)도 동반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06% MSCI 신흥 지수 ETF는 0.1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4.1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2%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파월 연준의장이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지양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 신중한 정책을 지향한다고 발표하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한 2차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우호적.
-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러-우 회담 개최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변화가 예상.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인 외국인 수급 요인과 덜 매파적인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 요인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에 주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703.52	+0.16	상해종합	3,484.19	-0.13
KOSDAQ	895.45	+1.63	홍콩항생	22,343.92	-1.84
DOW	33,891.35	+1.79	베트남	1,485.52	-0.88
NASDAQ	13,752.02	+1.62	유로스톡스 50	3,820.59	+1.45
S&P 500	4,386.54	+1.86	영국	7,429.56	+1.36
캐나다	21,255.64	+1.20	독일	14,000.11	+0.69
일본	26,393.03	-1.68	프랑스	6,498.02	+1.5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 파월의 덜 매파적인 연설 ② 높은 상품 가격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언급. 이번 제재는 러시아 항공기의 미 영공 비행 금지, 러시아 재벌 범죄 조사 등을 포함해 재정적 압력에 국한. 더불어 미군의 참전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극단적인 사태 악화 가능성을 제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공급망을 미국으로 돌려 미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국내 생산을 언급하자 관련 종목군의 강세가 뚜렷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통화정책 관련 의회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3월 회의에서 25bp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전반적인 투자심리 개선. 경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고용시장은 견고하다며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위험자산에 긍정적.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완화 시기가 매우 불확실하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지속된다면 50bp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점은 부담.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는 원하는 수준까지 3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 더불어 파월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미국 금융 시스템은 견고하지만 SWIFT에서의 러시아 배제로 의도치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주요 중앙은행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언급

이런 가운데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 물론 코로나로接客업 등 일부 부진한 부문도 있었으나 제조업이 지속 성장을 주도한다고 발표. 고용시장 또한 완만한 속도로 개선 되고 있음을 언급.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가격 전가가 강력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몇 개월 동안 이러한 비용 전가 지속에 따른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발표.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 능력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대체로 연준은 경기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는데 반드시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 인플레는 올해와 내년에 떨어 지겠지만, 올해는 3%, 내년에도 2.5%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높은 인플레 장기화 우려를 표명. 다만 올해 4번의 금리인상을 주장.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격적인 정책 변화를 시사.

OPEC+ 장관급 회담은 시장 예상과 같이 하루 40만 배럴 증산을 유지한다고 발표. 이후 WTI는 110달러를 넘는 급등을 보였고, 곡물 중 밀 가격도 공급 감소 우려로 급등 지속. 여기에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도 상승하는 등 상품 선물시장의 강세는 전일에 이어 뚜렷했으나, 오늘은 이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우크라이나 관련 기대 심리가 더 큰 모습. 특히 러시아가 회담 대표단이 대기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장한데 이어 우크라이나 또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발표해 휴전 회담 진행 여부에 주목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실적 호전 업종 강세 Vs. 태양광, 방위 업종 부진

백화점 업체인 노드스트롬(+37.82%)은 연말 연시 예상보다 견고한 실적과 강력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자 급등. TJX(+3.47%), 메이시스(+6.77%), 콜스(+3.86%) 등도 동반 상승. 포드(+8.38%)는 전기차 사업부문 분할과 전기차 생산 목표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 더불어 바이든의 적극적인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 GM(+4.04%)도 동반 상승. 마이크론(+8.16%), 엔비디아(+3.18%), 브로드컴(+2.75%) 등 반도체 업종도 바이든 발언에 힘입어 상승. 엑손모빌(+1.72%), 셰브론(+2.95%)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세 지속 영향으로 강세. CF 인더스트리얼스(+2.84%), 모자이크(+3.87%) 등 농업 관련주도 곡물가격 급등에 힘입어 상승

애플(+2.06%)은 3월 8일 스프링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제품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스카이웍(+2.83%), 쿼보(+3.40%), 아날로그디바이스(+1.83%), 쉐컴(+3.83%) 등 부품주도 동반 상승. 세일즈포스(+0.72%)는 견고한 실적과 낙관적인 가이드스 발표로 상승. 인튜이티브(+3.72%) 등 여타 소프트웨어 업종도 동반 상승. JP모건(+2.07%), BOA(+1.62%) 등 금융주는 국채 금리 급등에 힘입어 상승. 반면, 레이테온(-1.94%), 록히드 마틴(-1.45%) 등 방위업종은 바이든의 참전 배제,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회담 개최 기대 등으로 하락. 퍼스트솔라(-8.08%)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 진코솔라(-2.02%), 솔라엣지(-3.13%), 인페이즈(-3.93%)도 동반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89	대형 가치주 ETF (IVE)	+1.91
에너지섹터 ETF (OIH)	+4.76	중형 가치주 ETF (IWS)	+2.41
소매업체 ETF (XLY)	+2.10	소형 가치주 ETF (IWN)	+2.66
온라인소매 ETF (EBIZ)	+1.00	대형 성장주 ETF (VUG)	+1.57
금융섹터 ETF (XLF)	+2.59	중형 성장주 ETF (IWP)	+1.69
기술섹터 ETF (XLK)	+2.17	소형 성장주 ETF (IWO)	+2.1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48	배당주 ETF (DVY)	+2.61
클라우드 ETF (CLOU)	+0.57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37
미국 리츠 ETF (VNQ)	+1.87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44
주택건설업체 ETF (XHB)	+2.92	미국 국채 ETF (IEF)	-1.50
바이오섹터 ETF (IBB)	+0.53	하이일드 ETF (JNK)	+0.32
헬스케어 ETF (XLV)	+1.51	물가연동채 ETF (TIP)	-0.65
곡물 ETF (DBA)	-0.0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52
반도체 ETF (SMH)	+3.27	모멘텀 ETF (MTUM)	+2.17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금융	631.87	+2.55	-0.78	-4.09
소재	522.34	+2.24	+1.92	-3.17
에너지	552.49	+2.22	+7.89	+6.10
산업재	848.06	+2.19	+5.06	-1.89
IT	2,705.23	+2.19	+4.87	-5.10
경기소비재	1,403.51	+1.94	+5.72	-4.10
부동산	286.42	+1.83	+4.11	-2.85
헬스케어	1,527.56	+1.54	+3.70	-0.47
유틸리티	344.75	+1.21	+4.72	-0.70
필수소비재	783.54	+1.00	+0.42	-1.05
커뮤니케이션	231.72	+0.71	+4.11	-8.6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출발 후 외국인 수급 동향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06% MSCI 신흥 지수 ETF는 0.1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04.1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2%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상품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 우려로 하락하자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종목군 주도로 상승. 여기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으나, 미군 참전을 배제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약화된 점도 긍정적. 다만, 외국인의 부정적인 수급은 대형주 중심으로 부진하거나 상승폭이 제한된 점이 특징

미 증시가 파월 연준의장이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지양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 신중한 정책을 지향한다고 발표하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강세도 투자심리에 긍정적.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한 2차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우호적. 결국 미 증시 상승 요인인 파월 연준의장의 덜 매파적인 발언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 기대는 한국 증시 상승 기대를 높임.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러-우 회담 개최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변화가 예상.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인 외국인 수급 요인과 덜 매파적인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 요인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에 주목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민간 서비스 고용이 주도하며 증가

미국 2월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고용자수는 지난달 수치가 30.1만 건 감소에서 50.9만 건 증가로 수정된 가운데 47.5만 건으로 발표해 예상(32.0만 건)을 상회.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 생산 지난달 발표 수치가 27.4만 건 감소에서 42.1만 건 증가로 수정된 데 이어 41.7만 건 증가하며 이를 주도. 규모별로는 소기업이 9.6만 건 감소한 가운데 대기업이 지난달 28.4만 건을 크게 상회한 55.2만 건 증가로 발표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미 국채 금리 되돌림 유입되며 급등

국제유가는 OPEC+ 회담에서 하루 40만 배럴 증산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WTI 기준 110달러를 상회하는 등 급등세가 지속. EIA가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원유재고가 26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 다만, 최근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 출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으나 급등세는 지속

달러화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유럽 경제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자 유로화 대비.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슈를 이유로 신중한 통화정책을 언급하자 달러화 강세폭이 축소되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회담을 개최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세 전환 하기도 하는 등 변화. 한편,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 상품 환율은 상품가격 급등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캐나다 달러는 BOC가 25bp 금리 인상한 점도 달러 대비 강세 폭 확대

국채금리는 견고한 고용지표 결과와 최근 하락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며 상승. 더불어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25bp 금리인상을 언급한 데 이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가 지속될 경우 50bp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2차 휴전 회담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영향을 주며 급등세가 뚜렷

금은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러시아 제재에 따른 공급 둔화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며 4~6% 내외 급등. 곡물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파월 의장이 곡물 재고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자 밀 가격이 급등. 그러나 옥수수과 대두의 경우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41%, 철근은 0.06%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0.60	+6.95	+20.09	Dollar Index	97.348	-0.06	+1.20
브렌트유	112.93	+7.58	+20.07	EUR/USD	1.1123	-0.02	-1.63
천연가스	4.82	+5.38	+4.24	USD/JPY	115.53	+0.53	+0.45
금	1,922.30	-1.11	+0.62	GBP/USD	1.3404	+0.59	-1.03
은	25.19	-1.37	+2.41	USD/CHF	0.9203	+0.20	+0.26
알루미늄	3,569.00	+2.62	+8.40	AUD/USD	0.7296	+0.61	+0.86
전기동	10,166.00	+1.04	+3.04	USD/CAD	1.2636	-0.84	-0.77
아연	3,861.00	+3.07	+8.11	USD/RUB	101.9698	-5.75	+24.85
옥수수	725.00	-0.10	+6.42	USD/BRL	5.1020	-0.97	-0.09
밀	1,059.00	+7.62	+19.69	USD/CNH	6.3225	+0.06	+0.16
대두	1,663.00	-1.60	-0.48	USD/KRW	1,206.10	+0.32	+1.12
커피	229.20	-2.88	-7.41	USD/KRW NDF1M	1,204.15	-0.18	+0.9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892	+16.48	-9.89	스페인	0.996	+13.90	-26.30
한국	2.612	-7.30	-10.30	포르투갈	0.854	+12.90	-28.90
일본	0.140	-3.60	-5.70	그리스	2.352	+5.00	-25.80
독일	0.027	+9.90	-20.10	이탈리아	1.551	+15.10	-38.8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